

## 홍현희 vs 유난희 런웨이, '오래 살고 불일-어쩌다 모델'

등록 2020.10.12 14:43:46



[서울=뉴스시스] MBN 예능 프로그램 '오래 살고 불일-어쩌다 모델' 제1회 (사진=MBN '오래 살고 불일' 제공) 2020.10.12. 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 이수지 기자 = 개그우먼 홍현희와 쇼호스트 유난희가 MBN 새 예능 프로그램 '오래 살고 불일-어쩌다 모델'에서 캐워크를 선보인다.

홍현희와 유난희는 18일 오후 6시 첫 방송하는 '오래 살고 불일-어쩌다 모델'에서 시니어 모델 오디션의 시작을 알리는 런웨이에 오른다.

'오래 살고 불일' 제작진은 "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니어 스타일 아이콘을 찾는 국내 최초 시니어 모델 오디션인 만큼, MC 및 멘토 군단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"며 "홍현희와 유난희가 첫 녹화부터 패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패션 센스를 발휘해, 오디션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"라고 12일 전했다.

'오래 살고 불일'은 시니어 스타일 아이콘을 찾는 시니어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이다. 지원자 총 2089명 중 선발된 최종 54명이 첫 회에서 공개된다.

홍현희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혜진, 정준호, 황광희와 함께 MC를 맡았다. 유난희는 김소연, 오중석, 요니P, 구동현 등과 함께 멘토 군단으로 활약한다.

최근 진행된 첫 녹화에서 홍현희와 유난희가 각자 매력을 살린 패션 스타일을 선보였다.

홍현희가 먼저 미니멀한 패션에 과감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살렸다. 가죽 재킷에 샤스커트를 매치하는가 하면, 스카프를 연상케 하는 큰 귀고리를 착용했다. 특히 도도한 눈빛에 날렵해진 턱선을 드러내 전문 모델 못지 않은 카리스마를 보여줬다.

유난희는 풍성한 체크 원피스에 레드 슈즈와 레드 벨트로 포인트를 줘 '에이지리스' 패션의 정석을 보여줬다. 1세대 쇼호스트다운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런웨이를 밟았다.

전혀 다른 두 사람의 런웨이에 한혜진 등 MC와 멘토 군단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는 후문이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